



■■■ 아파트의 미학(美學) <35> 서울숲 더샵

공원 뺨치는 옥상정원 한강 조망권은 보너스

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'서울숲 더샵'의 옥상정원(스카이가든)은 최고의 한강 조망권을 자랑했다.

◆동별정원 '스카이가든', 최고의 한강 조망

포스코건설이 지은 서울숲더샵은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. 공사가 한창인 행당7구역 재개발현장을 지나 단지 안으로 진입했다.

이 아파트 단지는 총 3개동, 495가구로 규모는 작았지만 언덕 위에 높게 세워져 멀리서 보면 마치 중세 유럽 영주의 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. 1층에는 소규모 공원과 광장, 상업시설이 위치해 입주민 외 방문객도 편안히 쉬어갈 수 있게 조성했다. 추워진 날씨 탓에 야외 휴게공간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보다는 상가시설 건물에 입점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의 조경을 감상하는 이들이 많았다.

서울숲더샵은 단지 중심부에 정원이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상가시설 옥상에 정원이 층별로 조성됐다. 이를 바 '스카이가든'이라고 불리는 동별정원이다. 이 조경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다. 마치 등산을 하는 기분이다. 한 걸음씩 발을 옮길 때마다 왕십리역 주변 일대 시야가 확보됐

상가시설 옥상에 층별 정원 조성
단지 순수 녹지율 30.27% 달해
아트 페이빙·미러 폰드 등 마련
에너지 효율 높여 환경성 제고

다. 정원을 감상하면서 한강과 서울숲 공원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점은 서울숲 더샵 만이 가진 매력이었다.

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의 순수 녹지율은 30.27%에 달한다. 녹지체계는 '소통과 만남'이란 주제로 아파트 동 사이의 녹지공간인 그린루프, 주민전용 녹지공간, 생태 수공간으로 나뉜다. 조경은 물결치는 형상의 화려한 외관을 적용해 주변지역 어디서나 눈에 띄도록 설계했다.

◆**산책로·생태연못 조성, 에너지 효율 높여**

대형 수목이 없어 웅장한 멋은 없었지만 소형의 수목을 아기자기하게 식재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. 사철나무를 비롯해 붉게 물든 수목들은 계절감을 선사했다. 단지안에는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꾸민 '아트 페이빙', 생태연못 '미러 폰드',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다.

건물 최상층에 오르자 한양대학교를

포함해 주변 일대가 한 눈에 들어왔다. 최고점에 올라와 볼 수 있는 드넓은 도시경관은 서울숲더샵이 입주민에게 준 선물이다.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조경 외에도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,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발전시스템, 지하주차장의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성을 제고했다. 태양광 발전은 옥탑 조형물 위에 일조시간 등을 검토한 후 최적의 발전이 가능한 위치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각 가구에 공급하는 형식이다. 이밖에 실내골프연습장과 연결된 야외 퍼팅그린도 설치됐다.

포스코건설 관계자는 "최상층에는 서울 야경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가든을 배치했다"라며 "저층부 상가 및 업무시설에는 거주자와 방문객을 위한 친환경 조경시설을 설치했다"고 했다.

이 아파트 단지는 한강조망과 조경 외에도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정평이 났다. 인근에 있는 왕십리역은 경의중앙선을 비롯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, 수인·분당선이 지나며 수도권광역철도노선(GTX)-C노선 개통 등 호재가 예고됐다.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가 가깝다.

/정연우 기자 ywj964@metroseoul.co.kr



서울 성동구 포스코건설 '서울숲 더샵' 전경.



서울숲 더샵 조경.



서울 성동구 포스코건설 '서울숲 더샵' 산책로.

서진=송진영 기자 son@

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



- ▲ 정의용 "한중 장관 회담 당시 요소수 보고 받지 못해" / 사진 뉴시스
- ▲ 이재명 "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화…소음단속 강화"



- ▲ 16세 미만 '게임 셧다운제', 10년만 폐지…본회의 통과 / 사진 뉴시스
- ▲ '여성 경제활동촉진법' 국회 통과…경력단절 '예방' 초점

- ▲ 청탁금지법 대상에 장학생선발·논문 심사 등 추가
- ▲ '대리점에 보복시 3배 배상' 대리점 법, 국회 본회의 통과